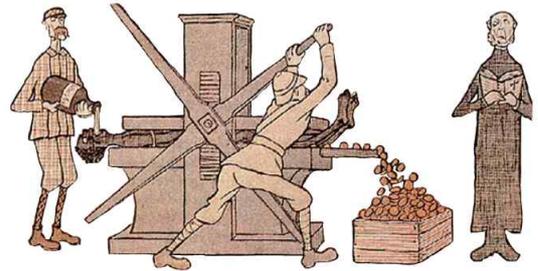


제국주의와 세계 분할

[제국주의(帝國主義, imperialism)의 등장]

01. 정의

- 1880년 전후 등장한 **침략적 민족주의**
- 열강의 대외 침략 정책



〈토머스 하이네, 「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」〉

02. 등장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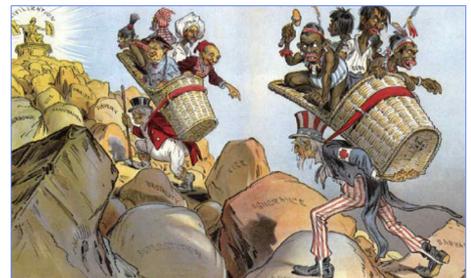
- **독점적 자본주의 출현**
: 값싼 원료 공급지와 제품을 판매하고 국내 잉여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
- 국민 국가 간 경쟁과 갈등

03. 확산

- 민족주의와 결합
: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이 민족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 준다고 생각하여 적극 지지
- **사회 진화론 유행**
: 스펜서(Herbert Spencer, 1820 ~ 1903)

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이며, 생물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 법칙처럼 사회도 적응과 도태를 통해 저급의 상태에서 고급, 우등의 사회로 발전한다.

- 다윈의 자연 선택(『종의 기원』, 1859)을 사회에 적용
-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 제공
-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
- **서양의 문화·인종 우월주의**
: **백인종이 황인종과 흑인종보다 우월, 비유럽 지역 = 야만 지역**
: 크리스트교와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백인의 신성한 의무이자 봉사로 미화
: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화



〈빅터 길럼, 「백인의 짐」〉

04. 열강의 경쟁 심화

-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과 프랑스가 제국주의 정책 주도

영국은 넘쳐 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.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. -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총독, **세실 로즈**(1853 ~ 1902)

- 통일 국가를 이룬 이탈리아(1861)와 독일(1871)의 제국주의 대열에 합세
- 남북 전쟁(1861 ~ 1865) 이후 미국의 동참
- 19세기 후반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과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 추진
- 열강 간의 식민지 획득 경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

제국주의와 세계 분할

[★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]

01. 배경

- 탐험가 리빙스턴(1813 ~ 1873)과 스탠리(1841 ~ 1904)에 의해 아프리카의 내륙 사정이 유럽에 소개

나는 방대하고 비옥한 아프리카 대륙이 신비의 베일을 벗고 유럽인의 경제생활에 유용한 상업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. …… 나의 기록이 미지의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- 리빙스턴의 『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』(1856)

02. 분할 정책과 충돌

1) 영국의 종단 정책과 3C 정책

- 종단 정책
: 수에즈 운하 관리권 장악(1875), 이집트 보호국화(1882)
: 보어 전쟁(1899 ~ 1902), 케이프 식민지를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조직(1910)
- 3C 정책[케이프타운(Cape Town) ~ 카이로(Cairo) ~ 캘커타(Calcutta)]



(키니네(말라리아 예방약))

2) 프랑스의 횡단 정책 추진

- 알제리 장악(1834), 튀니지 보호령화(1881)
- 사하라 사막 확보, 콩고 분할(~ 벨기에)
- 마다가스카르 섬 차지

3) 벨기에

- 레오폴드 2세(재위 1865 ~ 1909)
: 영국·포르투갈 연합 격퇴(1884 ~ 1885)
: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대한 영유권 선언

4) 독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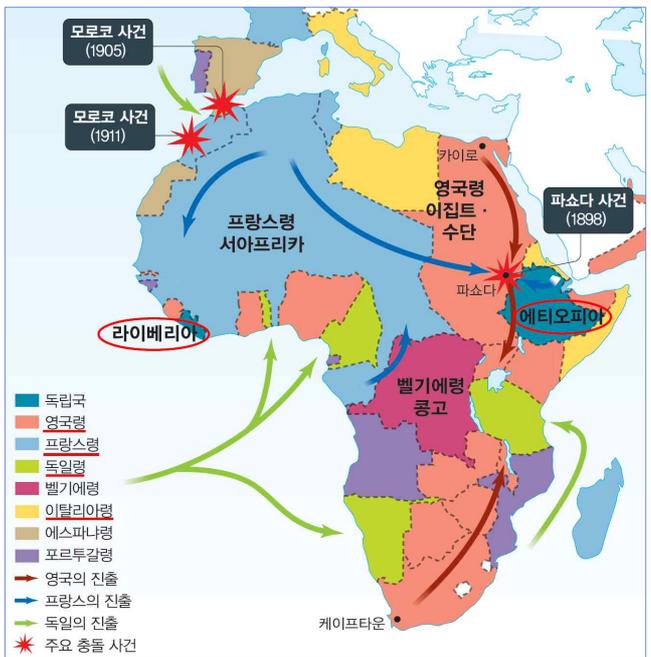
- 남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, 토고·카메룬 차지
- 모로코 사건(⇔ 프랑스, 1905·1911)

5) 포르투갈

- 앙골라 ~ 모잠비크 연결
: 『장미 빛 지도』 구상(1886)

6) 파쇼다 사건(수단, 1898. 7월)

- 영국(종단) ⇔ 프랑스(횡단)
- 독일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양보



(아프리카 분할 · 점령과 열강의 충돌)

03. 독립국 유지

- 라이베리아(자유의 나라,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, 1847)
- 에티오피아

제국주의와 세계 분할

[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분할]

01. 포르투갈

- 신항로 개척 이후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 진출
- 블라카 왕국 점령(1511)
- 향신료 무역 독점

02. 영국

- 동인도 회사 설립(1600)
- 미얀마를 영국령 인도 제국에 병합(1886)
- 말레이 연방 결성(1895)

03. 프랑스

- 베트남, 캄보디아 진출
- 청프 전쟁(1884 ~ 1885)에서 승리
-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(1887)

04. 네덜란드

- 말루쿠 제도 진출 → 포르투갈로부터 지배권 약탈(1599)
-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설립(1602)
: 바타비아(자카르타)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 독점
- 자와 전쟁(1825 ~ 1830) → 자와 섬 장악
-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(1904)
: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식민지로 확보

05. 에스파냐

- 프랑스, 네덜란드, 영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식민지화(1837)
- 미국·에스파냐 전쟁(1898) 패배
: 파리 조약 → 필리핀 식민지 상실

06. 러시아

- 시베리아 개척, 이란 침략, 아프가니스탄 진출 시도
-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팽창 견제(1880)



<열강의 인도, 동남아시아 식민 지배>



<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착취>

제국주의와 세계 분할

[제국주의 열강의 태평양 분할]



01. 미국

- 하와이 제도를 병합하여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
- 에스파냐와의 전쟁(1898)에서 승리
: 쿠바 보호국화, 필리핀과 괌의 식민지화

02. 독일

- 태평양 서부 캐롤라인 제도, 팔라우 등을 에스파냐로부터 매입
- 비스마르크 제도, 마셜 제도 점령

03. 영국

-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삼은 뒤 죄수 유배지로 이용(1788)
-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음(1840)



읽어 보기

식민지 지배의 정당화



▣ 러디어드 키플링, 『백인의 짐』

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/ 야만적인 전쟁을 평화로 바꾸고 / 기아로 허기진 입들을 먹이기 위해 /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/ 그리고 네가 너의 목적을 달성할 때쯤 / 너는 원하는 다른 미개인들을 위해 / 다른 원주민들과 이교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라 / 그들의 광기를 끝장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.